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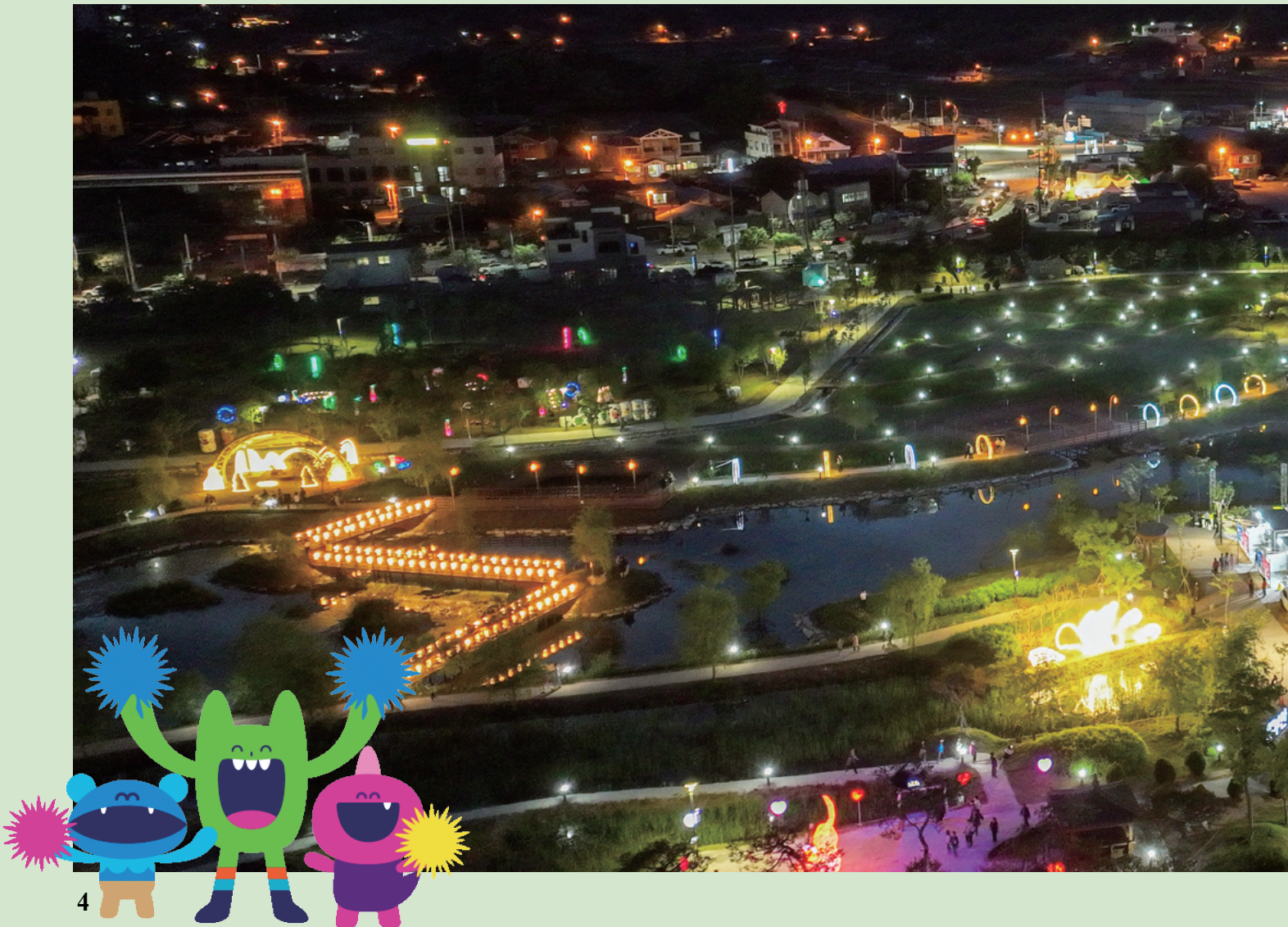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 선물

부안마실축제

2026년 5월 2일(토)~5월 5일(화) 부안 해뜰마루 일원

단순한 관람 탈피
지역자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
지속가능한 축제 브랜드 도약

2026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안 해뜰마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지역 상생과 지속 가능한 축제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6년 제13회 부안마실축제는 '마실'이라는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부안의 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기획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스토리형 무대 프로그램 관람객 몰입을 극대화하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획일화된 공식 행사를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개막식은 부안 고유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산돌마실몬, 푸른바다몬, 붉은노을몬)'을 전면에 내세운 스토리형으로 진행된다. 뮤지컬이나 극 형태의 퍼포먼스를 통해 시작부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또한, 타깃 맞춤형 음악 축제로 엄마아빠들의 음악 경연 대회인 '마마스앤파파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청소년 대상의 마실樂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핵심주제 프로그램

상권연계 지역 상생을 이끈다

축제장 내의 열기를 부안군 전체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기획했다.

주무대 안쪽에 차려지는 팝업스토어 형태의 여행자 센터에는 '부안 맛집 랜덤 캡슐 자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안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캡슐을 뽑으면 음식점을 추천해 준다. 방문객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안 읍내 상권이나 외곽 식당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낙수 효과를 겨냥했다. 여기에 더해 부안군 13개 읍면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들려주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단기 방문을 1박 2일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이웃기웃 마을 투어'를 통해 인문학적 가치와 관광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신규참여 프로그램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 반영

1인 가구 증가 및 MZ세대의 능동적인 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현장을 찾은 1인 방문객이나 낯선 사람들도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지도와 미션 키트를 활용해 축제장 전역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미션형 스탬프 투어', 축제전 4월 번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변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으로 유입되도록 '부안몬 프렌즈 런' 홍보 등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 유발과 체류 시간 극대화를 도모한다.



특별 프로그램

축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풍성하다. 부안몬 프렌즈와 화려한 공연팀이 축제장 곳곳을 순회하는 초대형 퍼레이드 '해뜰마루 마실 퍼레이드', 부안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해 요리해 먹는 바비큐 존 '로컬푸드 팝파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정원 곳곳 인형극' 등이 축제의 재미를 극대화한다.





체험·판매 프로그램 오감으로 즐긴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밭줄 놀이와 해먹 등 해돋마루의 지형을 활용해 조성된 생태 체험 공간 '부안몬 자연놀이터와 식물 상담 및 그린 팝업스토어로 꾸며진 맞춤형 공간 '식물 정거장'이 자연 속 힐링을 선사한다. 관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군민 참여 체험 부스와 부안의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모인 '부안 부엌마당'이 오감을 만족시킨다.



부대 프로그램 낮과 밤이 모두 즐겁다

부안마실축제가 개최되는 해돋마루의 밤은 낮만큼이나 눈부시다. '해돋마루 야간경관' 프로그램은 산책로 곳곳에 포토존과 다양한 조명을 점등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야간까지 자연스럽게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축제장에 조성되는 작은 놀이공원 '부안몬 테마파크', 에어돔 안에서 영화, 요가, 인형극 등을 즐길 수 있는 작고 특별한 극장 '에어돔 프로그램'이 더해져 하루 종일 빈틈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계 프로그램 축제의 흥을 돋워라

축제의 흥을 한층 돋울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2026 흥 페스티벌 in 부안'이 함께 열린다. 전통 국악 공연과 신바람 퍼레이드, 악기 및 놀이 체험 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열린 마당 축제로, 신명 나는 국악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제13회 부안마실축제는 대기 시간조차 퀴즈 등 이벤트로 채워 '기다림까지 경험이 되는' 세심한 현장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상권 연계 전략이 결합된 이번 축제가 부안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상기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의 초안으로,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